◈며느리 권씨 열전 10-1

3대(남편·아들·손자) 대제학 집안을 이룬

월사 이정구의 부인 권씨 (정경부인, 추밀공파23世, 충숙공 권극지의 딸)

소박질정(素朴質正)의 에피소드

정명공주의 친필, 당대 한석봉등의 필체로 수련한 힘찬 글씨
[사진제공-네이버]

'화정(華政)' 이 두글자를 '빛나는 정치'라는 단순한 뜻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새겨볼 말이다. '화정'은 화려함 보다 소박과 정의, 청빈과 결기의 정치를 의미할 것이다. 문질빈빈(文質彬彬)이니, 문(文)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장식, 태도(態度), 학식(學識)을 가리킨다. 질(質)은 내면의 인격(人格), 실질(實質)을 말한다.

빈빈(彬彬)은 잘 조화(調和)를 이루어 균형(均衡)이 잡힌 상태를 나타내는 뜻이다. 즉, 외관과 내면이 적당하게 조화(調和)를 이뤄야 '참(眞實)'이라는 말이다.

'논어금독(論語今讀)'에서 공자는 말하였다. "본바탕(本質)이 교양(教養)을 능가하면 야비하게 되고, 교양이 본바탕을 능가하면 가식적이게 된다. 본바탕과 교양이 조화를 이룬 후에야 비로소 군자가 된다(文質彬彬, 然後君子).(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 彬彬然後, 君子.)" 이런 정신 아래서 만이 진정한 화정(華政)이 이루어 진다.

이 서예작품은 500년을 내려오는 것으로 무려 한 변 73cm의 대작인데 이를 쓴 사람은 바로 인목대비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1685)이다. 그의 남동생이 광해군이 죽인 영창대군이다. 그녀는 온갖 간난을 버티고 83세까지 살아서 조선조 최장수 공주가 되었다.

후에 그녀가 며느리를 볼 쯤이니 1630년대에 지금 풍문여고 자리에 있던 사저에서 고관대작의 부인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나라에서 공주의 집을 빛나게 하기 위해 "모든 재상 부인들은 잔치에 참석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재상집 부녀자들은 부귀를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복장에 값비싼 패물들을 차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잔치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날 가장 뒤늦게 70대의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허술한 가마에서 내리는데, 무명 베저고리에 무명치마를 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농촌 여인의 모습이었다. 이에 고관댁 부녀자들은 그 노부인을 보고 "촌 늙은이가 어찌하여 이런 자리에 나오나?"하고 의아해하며 업신여겼다. 그 늙은 부인이 뜰에 올라오자 정명공주는 버선발로 뛰어 내려가 부축하여 극진히 맞아들여 제일 상석에 앉히고 공손하게 대접하는 것이었다. 이에 참석한 부녀자들은 놀라고 말았다. 잔칫상이 들어온 후 그 늙은 부인이 맨 먼저 일어나 작별을 고했다. 이에 정명공주가 "해가 아직 멀었으니 더 놀다 가시라."고 만류하였으나 부인이 대답하길 "저희 집 대감(李廷龜)은 '약원도제조(부총리급)'라 새벽에 입궐하셨고, 큰아들은 이조판서(李明漢,행안부장관급)로 정원에 나가있고, 둘째 아들(李昭漢)은 승지(청와대 수석급)로 임직하여 내일 아침에나 돌아올 것인즉, 늙은 제가 돌아가서 저녁식사를 차려 보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일찍 돌아가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여러 재상집 부녀자들이 비로소 늙은 할머니가 월사 이정구(月沙 李廷龜,1564-1635)의 부인 권씨임을 알고 자신들의 차림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이정구의 장녀가 풍산 홍씨 '홍영'의 부인이고 그 아들이 '영안위 홍주원(永安尉 洪柱元, 1606-1672)'이니 정명공주의 남편이다. 즉 시가의 외할머니인 권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남편, 아들(문정공 李明漢, 1595-1645), 손자(문숙공 李一相, 1612-1666) 3대에 걸쳐 정승보다 더 높게 치는 대제학(문교부장관 겸 서울대총장) 집안이고 모두 시호를 받았으니 대단한 가계이다. 홍주원의 6대손이 혜경궁 홍씨이니 그 인문(人文)의 유전자가 정조대왕(1752-1800)에게 까지 연결되었는지도 모른다.

부군 문정공 월사 이정구

월사 이정구, 月沙 달빛에 비친 모래처럼 청명하고 낭만적인 삶
[사진제공-두타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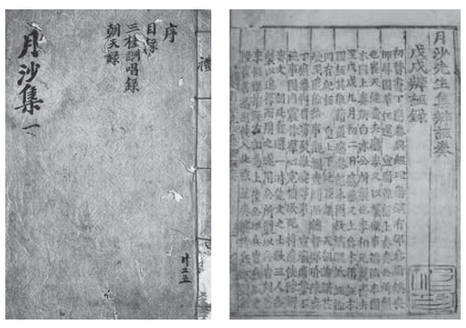
조선조 삼대 대제학을 지낸 집안으로는 연안이씨(이정구·이명한·이일상)외에 대구서씨(서유신·서영보·서기순), 광산김씨(김만기·김진규·김양택), 전주이씨(백강 이경여 집안) 집안이 있다.

월사 이정구의 부친은 문장에 능한 이계(李啓)이고,모친은 현감 광주(光州) 김씨 김표(金彪)의 딸이다. 연안(今延白) 이씨는 당나라 황실 성씨인 농서(隴西) 이씨에서 기원한다고 한다.

조선전기 학자이며 바둑의 대가 연성부원군 이석형(李石亨, 1415-1577)의 5세손으로 모친이 해산할 때 범(虎)이 문밖에 와 엎드려 있다가 선생이 태어난 뒤에야 돌아갔다는 전설이 있다. 모두 신기해하면서 군자가 태어나 문명을 밝힐 것이라 했다. 1585년(선조18) 진사가 되고, 1590년(선조 23)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에 들어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선조가 몽진을 떠나기 전날 광해군의 세자책봉을 위해 숙직을 하던 장인 예조판서 권극지(추밀공파 22世)가 급서하여 장례를 치르고 가묘를 쓴 뒤 처자와 자신의 부친, 장모, 처제를 데리고 왕을 쫓아 따라갔다.

묘비, 정경부인 안동권씨 부좌, 자전, 증 시호 문충공 이정구의 묘, 겸 경연사춘추관사 세대광보국숭록대부의 정부좌의정

그가 명(明)에 갔을 때, 그곳 문인들의 요청으로 100여 장의 기행문을 모아 『조선 기행록』이란 책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한어(중국어)에도 능통하니 조선조 몇 안되는 한문의 정통대가로 알려져있다.



조선시대 문신 이정귀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36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중 변무주(辨誣奏,무고함을 아룀)

1598년 명나라 찬화주사 정응태가 '조선이 왜국을 유인해 명(明)을 침략한다.'는 무고사건의 수습시에 정사 이항복, 부사 이정구, 서기관 한호(한석봉)로 하여 명나라로 가니 월사의 문장력은 이때 빛을 발하는데 정응태의 모함에 맞서 무술변무주(戊戌辨誣奏)를 지어 정응태(丁應泰)를 파직시켰다. 이후 동부승지, 좌부승지, 병조참지, 공조참판, 동지중추부사, 호조참판, 호조판서, 예조판서, 우참찬, 경기도관찰사, 지의금부사, 이조판서 등을 지내면서 선조를 보필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왕을 강화로 모시었고, 화의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였다. 신흠, 장유, 이식과 더불어 조선 중기 4대 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벼슬은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이정구선생묘 및 삼세신도비'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에 있다.

"宣祖實錄" 권105, 31년 10월 12일 (甲子), 내(이항복) 생각으로는 현재 작문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정구보다 나은 자가 없다. 그의 글을 보건데 마음 속에 있는 뜻을 남김없이 표현하는데 곡진하고 간절하며 함축성이 있고 우아 장중하니, 이는 참으로 글을 잘 짓는 선비이다.

한어 실력도 뛰어나서 대명외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로 부각되었으며, 명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나, 각종 주본작업에 참여하였다.

정경부인 권씨의 가계

정명공주의 시어버지가 '홍영'인데 이정귀와 권씨부인의 사위이다.

부친 22世 권극지 (權克智1358년, 중종33, 1592년, 선조25, 55세) 충숙공, 진사3등, 병과 급제, 예조 병조좌랑,정랑(인사국장),부제학,대사간, 임진왜란시 비변사 당상관으로 숙직중 적의 기습에 토혈(吐血) 사망하니 향년 55세, 충신으로 정려각이 세워진다.

연려실기술, 대동기문에 부패한 아전들이 철부도(鐵浮屠, 쇠부처)라 별명을 줄 정도로 강직, 청렴의 대표였고 가묘(假墓)의 시신을 왜군이 발굴하여 이후 다시 장례를 치루기도 했다.

모계로 정부인(貞夫人) 전주이씨(1530-1617, 88세)는 병사(兵使, 군사령관) 이이수(李頤壽)의 무남독녀이고 묘소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에 있다. 사위 이정구가 비문을 짓고 '정려각'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있다. 본 편 부터는 주인공의 모계 혈통도 살펴보고져한다. 정경부인 권씨의 외조부 이이수는 덕천군(德泉君,정종의 10째 아들)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변성군(邊城君) 이계연(李繼連)이다.

이이수는 관직이 경상도병마절도사에 이르러 군사를 지휘하였다. 마음이 어질고 후덕하여 주위 사람을 잘 보살피고 인간관계가 좋았다.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의 장례를 치른 뒤 3년 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고, 산소에 놓을 비석과 상석도 혼자 힘으로 깎아서 마련하였다. 아버지 이계연의 묘소와 묘비는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동 소탐산 국도변에 있다.

그러면 이제 정경부인 권씨의 조부 부터 10世 파조 까지 대략보자면 이렇다. 지금까지 추밀공파 파조에서 15世까지는 많이 소개되어서 간략히 한다.

조부 21世 권덕유(權德裕) 1537년 사마시(소과, 예비시험) 생원, 음보(조상덕으로 관직)로 종묘서령(종5품), 3남 권극례가 이조판서가 되니 좌참찬(국무총리실 국장·장관급)으로 추증된다.

증조부 20世 권홍(權弘), 대사헌공, 1437년출생, 1497년 연산군3년 별시문과 장원, 홍문관교리이다. 20世 권박(權博), 권홍의 동생으로 권덕유의 생부이다.

고조부 19世 권영(權齡), 참의공 음사로 장례원사의,호조정랑, 사재감첨정, 진위현감을 지냈다.

5대조 18世 권실(權實), 판관공, 진사, 참봉, 충훈대부, 제용감판관, 손자 권홍이 출세하니 추증된다.

6대조 17世 권순(權循), 좌윤공, 세종조 호조정랑(재경부 인사국장급)이다.

7대조 16世 권숙(權肅), 부윤공, 고려말 관직, 조선 개국후 은둔, 사촌인 권근이 태조에게 말해서 왕씨가 아니고 권씨라하여 환원되었다.

8대조 15世 권(王)중귀(權重貴), 밀직공, 기황후 오빠 기철의 사위, 원나라 태자와 동서간,기철의 딸이 원순제의 후비가 되어 딸을 낳았다.

9대조 14世 권(王)후(權煦), 본명은 권재(權載), 권준(權準)의 동생, 충선왕이 몽골(大都.북경)에서 아들로 하자고해서 '왕후'로 개명한다. 충선왕은 재직 기간중 고려에 1년, 몽골에 5년 있었다.

10대조 13世 권보(權溥),문정공, 삼중대광(국무총리급), 향년 85세, 당대구봉군으로 아들은 권준(權準)·권종정(權宗頂)·권고(權皐)·권후(權煦)·권겸(權謙)이고, 사위는 안유충(安惟忠)·이제현·순정대군(順正大君) 왕도(王璹)·회안대군(淮安大君) 왕순(王珣)이니 권력과 수복(壽福)을 누린 분이다.

11대조 12世 권단(權晅), 문청공, 동당문과 급제, 84세(1228-1311), 장단군 현위(縣尉)로 시작 후 승려가 되려고 했으나 아버지으 만류로 과거급제하여 고위직이 된다. 후에 과거 주재관으로 있을 때 권한공(權漢功,복야파,예천부원군)이 급제했다. 말년에는 선흥사(禪興社)의 승려가되고 사후 정승급으로 추증되었다.

13대조 11世 권위(權韙), 충헌공, 동당문과 급제, 중앙관직에서 한림학사, 몽골(元)사신등을 지낸다.

14대조 10世 권수평(權守平) 추밀공,추밀공파 파조, 고려중기 향직을 지내다가 수도권인 파주 인근으로 상경하여 후손들이 번창하였다.

정경부인 권씨의 집안도 추밀공파 '권보(溥, 이름자에는 '부' 가 아닌 '보')의 후손으로 명문가이다. 고려말 친원파에서 몰락후 권근에 의해 유지된 가문은 조선 개국후에도 중앙의 고위직에 있었고 정경부인 권씨의 친정도 청렴하니 그러한 가풍을 이어가면서 시가(媤家)의 가풍에 더하여 앞서와 같은 교훈 높은 에피소드를 남긴 것이다. 더구나 원래 장수(長壽) 집안이기도 하고 병자호란 때 아들이 모시고져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70대 중반은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분석해 보면 조선왕조 왕의 수명은 47세 이나 청백리의 수명은 70세가 넘고 환관은 74세인바 욕심이 없으면 스트레스도 덜 받으니 그런 것이리라.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SNS에 떠도는 '퇴계 이황 선생과 영의정 권철 대감의 일화'에 대하여

권충현 (35세 교육학박사)

퇴계 이황 선생

권철 대감

퇴계 이황 선생과 쌍취헌 권철 대감에 대한 일화라며 SNS에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떠돌고 있다. 퇴계 이황 선생을 높이다 보니 권철 대감을 영 우스운 사람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오늘 소개하는 것처럼 두 분을 무난하게 그리는 글도 있다. 며칠 전에 친구로부터 받은 내용을 그대로 싣고 그 내용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진술하고자 한다.

퇴계가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 돌아와 제자들을 양성한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자, 일찌기 영의정(領議政)의 벼슬을 지낸 바 있는 쌍취헌 권철(雙翠軒 權轍)이 서울서 퇴계를 만나보고자 도산서당을 찾아 내려오게 되었다.

권철은 그 자신이 영의정의 벼슬까지 지낸 사람인 데다가 후일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幸州山城)에서 왜적을 크게 격파하여 만고명장(萬古名將)의 이름을 떨친 권률(權慄) 장군의 친아버님이기도 했었고, 선조 때의 명재상(名宰相)이었던 백사 이항복(白沙 李恒福)을 손녀 사위로 삼을 만큼 지인지감이 뛰어났다.

권철은 워낙 지인지감(知人之鑑)이 남달리 투철하여 불한당(不汗黨)이나 다름없었던 소년 이항복의 사람됨을 진작부터 알아보고, 온 문중(門中)이 극력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우겨 사위로 삼은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다.

그처럼 견식이 탁월한 권철이 퇴계를 추앙하는 마음에서 서울서 멀리 예안까지 퇴계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다. 서울서 예안까지는 5백50리의 머나먼 길이다.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이 머나먼 길에 일개 사숙(私塾)의 훈장을 몸소 찾아온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권철은 관계(官階)를 초월하여 대학자(大學者)인 퇴계를 친히 방문하기로 했던 것이다.

권철은 초헌(軺軒, 종이품 이상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을 타고 국도를 따라 안동까지 내려오는 데는 별로 고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동에서 도산서당이 있는 예안까지는 길이 험하여 초헌을 타고 오기가 몹시 불편하였다. 그래서 감영에서는 권철 대감을 편히 모시기 위해 안동 고을에서 도산까지의 길을 새로 확장해야만 하였다. 권철 일행이 도산서당에 도착하자 퇴계는 동구 밖까지 예의를 갖추어 권철을 융숭히 영접하였다. 그리하여 두 학자는 기쁜 마음으로 학문을 토론하였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식사 때가 큰 문제였다. 끼니때가 되자 저녁상이 나왔는데, 밥은 보리밥에 반찬은 콩나물국과 가지잎 무친 것과 산채뿐으로 고기붙이라고는 북어 무친 것 하나가 있을 뿐이 아닌가. 퇴계는 평소에도 제자들과 꼭 같이 초식 생활만 해 왔었는데 이날은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산중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북어를 특별히 구해다가 무쳐 올렸던 것이다. 평소에 산해진미만 먹어오던 권철 대감에게는 보리밥과 소찬이 입에 맞을 리가 없었다. 그는 그 밥을 도저히 먹어낼 수가 없어서 몇 숟갈 뜨는 척하다가 상을 물려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퇴계는 다음 날 아침에도 그와 똑같은 음식을 내놓았다. 산골인 관계로 고기를 구할 수도 없었지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점도 없지 않았다.

권철 대감은 이날 아침에도 그 밥을 먹어낼 수가 없어서 엊저녁과 마찬가지로 몇 숟갈 떠먹고 나서 상을 물려버렸다. 주인이 퇴계가 아니라면 투정이라도 했겠지만, 상대가 워낙 스승처럼 존경해 오는 사람이고 보니 음식이 아무리 마땅치 않아도 감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권철 대감은 도산서당에 며칠 더 묵어가고 싶어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더 묵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다음 날은 예정을 앞당겨 부랴부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권철 대감은 작별에 앞서 퇴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렇게 만나고 떠나게 되니 매우 반갑소이다. 우리가 만났던 기념으로 선생은 좋은 말을 한 말씀만 남겨 주시지요"

"촌부가 대감 전에 무슨 여쭐 말씀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대감께서 모처럼 말씀하시니 제가 대감에게서 느낀 점을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퇴계는 그렇게 전제하고 옷깃을 바로잡은 뒤에 다시 이렇게 말했다. "대감께서 원로에 누지(陋地)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융숭한 식사 대접을 못 해드려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감께 올린 식사는 일반 백성들이 먹는 식사에 비기면 더할 나위 없는 성찬이었습니다. 농부들이 먹는 음식은 깡보리밥에 된장찌개 하나가 고작입니다. 그럼에도 대감께서는 그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나라의 장래가 은근히 걱정되옵니다. 무릇 정치의 요체(要諦)는 여민동락(與民同樂)에 있사온데 관과 민의 생활이 그처럼 동떨어져 있으면 어느 백성이 관의 정치에 심열성복(心悅誠服)하겠나이까. 대감께서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그 말은 폐부를 찌르는 듯한 충언이었다. 퇴계가 아니고서는 영의정에게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직간(直諫)이었다. 권철 대감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수그렸다.

"선생이 아니고서는 누구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는 충고이십니다. 나는 이번 행차에서 깨달은 바가 많아 집에 돌아가면 선생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이 능지성인(能知聖人)이라고나 할까, 권철 대감은 크게 깨달은 바 있어 퇴계의 충고를 거듭 고마워하였다. 그리고 권 대감은 서울에 올라오자 가족들에게 퇴계의 말을 자상하게 전하는 동시에 그날부터는 퇴계를 본받아 일상생활을 지극히 검소(儉素)하게 해나갔다.

이 일화에 대한 필자의 소견은 이렇다. 쌍취헌 권철 대감은 퇴계 이황 선생을 멀리서 흠모해 안동까지 내려와 만날 그런 소원한 사이가 아니었다. 쌍취헌 권철 대감은 퇴계 선생보다 두 살 아래인 1503년생이었지만 1543년 32세에 퇴계 선생과 대과에 함께 급제한 동방(同榜) 사이였다. 요즘도 고시 동기생들 간에는 경쟁자로서의 긴장감도 있으나 동기로서의 특별한 결속력과 연대감이 존재하듯이 조선조 과거 합격 동기생들 사이에도 동방으로서의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다. 특히 당시 식년시의 경우 대과 합격생은 삼 년마다 겨우 33명을 뽑았을 뿐이니 그 결속력은 매년 몇백 명씩 합격하는 오늘날 고시 동기생들보다 더욱 특별했다.

퇴계 선생께서 급제후 승문원권지부정자를 시작으로 중앙 관서에 있었던 십여 년 동안 쌍취헌 대감은 예문관 검열을 시작으로 이후 청요직을 두루 거쳐 병조좌랑, 이조좌랑, 병조정랑, 형조정랑 등을 역임한다. 이때 두 어른은 조정에서 함께 일한 동방이었으니 친숙한 만남이 이어졌을 것이다.

권철 대감은 작은 관직에 있을 때부터 몸가짐이 신중하며 청신하여 일찍부터 재상감이라는 중망(衆望)이 있었다. 퇴계 선생이 풍기군수를 그만두고 낙향해 계상서당을 시작한 1550년에 동방인 권철 선생은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고, 퇴계 선생께서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을 제수받고 다시 올라가 임직하면서 사학(四學)에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힘쓰라고 하셨던 1552년에 권철 대감은 도승지(都承旨)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대사성과 도승지가 된 동방 간에 소통이 없었을 리가 없다. 명종 임금의 명으로 퇴계 선생께서 공조참판[차관]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갔던 1558년 당시 권철 대감은 형조판서[장관]였다. 중앙 정부의 차관과 장관이 된 동방 동기간에 서로 간에 소통이 없었을 리가 없다.

특히 퇴계 선생께서 판중추를 제수 받고 무진6조소, 성학십도를 올린 1568년 당시 권철 대감은 조정 내 3정승의 한 사람인 좌의정이었으니 긴밀히 소통하는 사이였을 것이다. 권철 대감이 영의정이 된 것은 퇴계 선생께서 돌아가신 이듬해인 1571년이었다.

SNS에 떠도는 이 이야기는 두 어른의 관계 설정이나 내용이 사실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권율 장군의 아버지요 명상 이항복을 손녀사위로 삼았던 영의정 권철 대감을 비교 인물로 끌어들여 퇴계 선생의 검소함을 더욱 기리고 존숭하면서 공직자는 모름지기 여민동락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이야기로 이해함이 좋을 것이다. 대장동이니 50억 클럽이니 하는 간 큰 부패 공직자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때라 여민동락과 검소함을 강조한 이런 내용이 더욱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 모든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여 모든 국민들의 바람대로 더 바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